

진묵의 원에 대한 연구

최 원혁

1. 들어가며

진묵은 불교가 쇠퇴했던 조선 중엽에 애정 어린 뛰어난 도술로 한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민중에게 존경을 받고 석가불의 화신으로까지 알려졌지만 기존 불교계에서는 다소 초세간적인 언행으로 다소 인정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이다. 진묵은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구전 문학을 남겼고 『전경』에서도 모든 도통신을 거느리고¹⁾ 오늘날 과학 문명을 만든 현대인 특히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타난다.

진묵의 원(冤)은 가장 애통했음에도 왜 진묵만이 문명을 개발하려는 원을 가졌는지를 전경에서는 알 수가 없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전경에 나타난 진묵은 단주와 더불어 또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었던 만큼 가장 큰 원(冤)을 가진 존재가 된다. 진묵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배워²⁾ 불법을 통하여 한국에 베풀려고 하는 가장 큰 일을 하려는 순간 모든 것이 좌절된다. 진묵은 『전경』을 통하여 동양의 모든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에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지만 한국에 돌아와 선경건설에 역사케 함으로써 해월이 된다.³⁾ 그러나 왜 진묵만이 그토록 훌륭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유독 한국에서 천상묘법을 불법을 통하여 베풀려고 하였는지, 또 서양의 과학문명과 동양의 유불선 도통신의 관련성이 난해하여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

원(冤)은 불교의 인과(因果)와도 서로 관련되기에 진묵의 원(冤)의 원인에 대해서는 불교계에서도 오랜 시간 연구해왔다. 불교적 입장에서 진묵이 보인 이적을 보면 서가여래의 화신임에 손색이 없는데 그토록 뛰어난 진묵이 인세에 오시게 된 인연과 또 인세에 나타나 아무런 족적 없이 사라지셨는지는 불교계에서도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진묵의 원(冤)의 원인에 대한 불교적 관점에서 탁월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이선이(태경)는 진묵의 설화를 처음 기록한 초의 선사가 진묵을 서가여래의 화신으로 간주하고 진묵의 원이 서가여래의 오백대원이었음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⁴⁾ 지금까지 진묵의 원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교계에서도조차 주로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에 입각하여 연구되어 진묵의 일대기의 재구성과 사실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오백대원(五百大願)이란 서가여래가 부처가 되기 전 품었던 뜻으로 관음보살의 48원과 비슷하지만 그 숫자면에서 보다 서가여래의 방대한 원을 보여준다. 진묵이 서가여래의 화신이라면 세계를 불국토의 지상천국으로 만들고자 한 서가여래의 오백대원(五百大願)은 곧 진묵의 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진묵이 오백대원을 품고 세상에 왔다면 진묵의 일대기에 나타나는

1) 공사 3장15절

2) 권지 2장37절

3) 권지 2장37절

4) 이선이(태경), 「『震默禪師遺蹟攷』에 보이는 經典名과 그 의미」 『정토학연구제16집』, 한국정토학회, 2011.

수많은 이적과 초세간적 불법, 자비행 그리고 문명을 배워오기 위해 서역을 간 행위가 이해가 되고 김봉곡에 의해 죽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원이 되는가도 이해가 가게 된다.

지금까지 전경속의 인물 중 진묵은 가장 그 원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불교계에서도 진묵의 원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고 기존의 불교와 성격이 다른 전경 속의 불교와 기존 불교와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진묵에 대한 불교계의 연구와 불교에 대한 세계 종교계의 새로운 이해를 중심으로 전경에 나타난 진묵의 원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대순사상에서 원에 대한 연구는 첫째 원(冤)이 존재하는가, 둘째 그 원의 특성은 이타적인가 이자(利自)적인가, 셋째 그 원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를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 설명하는 연구라 할 수 있으므로⁵⁾ 진묵의 원에 대한 본 논문 또한 진묵의 원의 성립배경부터 진묵의 원의 성격, 크기까지 전생, 일대기, 그리고 후일담에 걸쳐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먼저 진묵의 일대기와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3장에서는 전경과 진묵의 일대기로 유추해 보는 진묵과 관련된 과거사, 후일담을 통해 진묵의 뜻과 노력, 원의 성격, 원의 크기를 알아보고 4장에서는 진묵의 원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2. 진묵의 일대기와 선행연구

진묵의 원을 알기 위해 진묵의 일대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묵의 일대기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진묵의 원에 대한 사실성 여부와 진묵 설화의 특징에 대한 연구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진묵의 원에 대한 사실성 여부를 살펴보면 주로 진묵에 관한 설화로 이루어진 진묵의 일대기는 진묵 관련 설화의 교차검증가능성 문제로 귀결된다. 진묵의 설화가 실화가 아니라면 불과 몇 백년 되지 않은 인물이었던 진묵에게만 왜 유독 설화가 집중되고 또 한 두 군데의 기록이 아니라 방대한 구전문학으로 전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한다.

진묵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진묵의 일대기를 간략히 살펴보면 <자료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석가의 화신이라는 출생 설화를 가지고 태어난 진묵은 주로 명종 말년에 태어나 인조 11년까지 불교가 탄압받아 사라져갈 때 민중의 희망으로 활약하였다. 7세에 입산하여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은 진묵은 초불교적인 많은 이적으로 민중들에게 큰 희망을 준다. 진묵은 곡차, 가족 관계 등 기존의 불교가 중용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계율에 대한 새로운 모범을 스스로 보임으로써 불교의 진면모를 일신하고 경제에도 적극 뛰어 들며 특히 불교를 통한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경』을 중심으로 진묵 관련 구절의 사실성을 살펴보면 『전경』에 언급된 김봉곡에 대한 일화, 사육소리가 된 전주아전 등의 일화가 『전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진묵대사유적고』 등 여러 문헌에도 나타나고 구비문학으로도 동시에 채록되었음을 보여준다. 문헌과 구비문학 채록에서도 스님이지만 천상의 묘법을 배워 인세에 베풀려하는 모습을 진묵은 보여준다. 진묵의 일대기와 관련한 문헌을 살펴보면 진묵 이후 200년이 지난 뒤 초의선사가 『진묵대사유적고』에서 18가지 설화를 기록한 후 현대의 구비문학대계에 이르기까지 수십가지의 설화가 채집되었다.(자료1 참조)

지금까지 진묵 관련 구절의 사실성에 대한 연구 중 추가할 점은 진묵 사후 도통신의 서양전

5) 박용철, 「解冤相生의 冤에 대한 考察」, 『대진논총』3, 대진대학교, 1995.

래 후의 상황문제이다. 진묵사후 도통신의 서양전래 사실성 입증의 최고 관건은 서양과학과 동양 유불선의 관계이다. 곧 오늘날 서양의 과학철학이 유불선에서 기원했음을 입증해 주어야 한다

다음 진묵일대기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라한의 등장을 중시하는 불교계의 연구⁶⁾, 유불선 삼교회통 등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아라한의 등장을 주목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아라한의 등장은 진묵이 곧 석가불의 화신이라는 반증으로 사용된다. 불교관련 설화 중에 소승불교에 해당하는 아라한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진묵설화가 거의 유일하다. 아라한이 보살과 다른 것은 아라한은 서가여래의 직계제자들로 해탈하지 않고 미륵이 오실 때까지 법을 보호하는 것은 보살과 같으나 서가여래로부터 전해 받은 신통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실제 진묵설화를 처음 채집한 초의선사는 서가여래의 오백대원이 나타나는 『비화경』을 『진묵대사유적고』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라한을 통하여 진묵을 서가여래의 화신으로 보는 불교계의 입장은 하필 서가여래와 아라한이 한국으로 화신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진묵이 유독 한국의 선경개발 역사에 원을 품었다는 것은 16아라한의 모체라 할 수 있는 500나한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나타나는 나반존자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불교연구에 따르면 미륵의 기원이 되는 마이트레이야는 인도-유럽어족과 우랄알타이어족에 공통된 영향을 미친 스키타이문화의 일부이고 석가모니의 민족인 석가족 또한 스키타이의 다른 이름인 “샤카”라는 의미에서 스키타이 문화의 본원지인 한국이 오히려 불교의 기원과 연관된다고 한다.⁷⁾ 석가의 화신이라는 진묵이 한국에서만 출현하고 500나한 중 홀로 깨달았다는 나반존자가 유일하게 한국의 전 사찰에 세워져있는 삼성각, 독성각에 모셔진다는 것은 최근의 불교연구가 실제 불교적 사실과도 일치함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⁸⁾

다음 진묵의 원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유불선의 회통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진묵의 원은 개인의 원보다도 사회적인 시대의 원으로 나타난다.⁹⁾ 진묵의 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민중의 고통을 반영한 사건인 정여립 사건과 연결하는 연구¹⁰⁾, 김봉곡과의 교유, 불교의 초세간적 계율에 대한 중용 등을 통하여 유불 회통을 통한 불교의 중흥 등에 대한 연구¹¹⁾가 있다. 진묵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진묵과 비교될 수 있는 유정, 휴정과 달리 왜 진묵만이 민중의 사랑이 담긴 구전설화를 많이 남길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지만 진묵의 설화를 이야기로 간주하고 사실로써 인정하지 않는다. 진묵의 설화를 이야기로써만 인정한다면 불과 몇 백년되지 않은 과거에 특정 인물에게만 설화가 집중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진묵의 원에 대한 대순 종단 내의 연구는 진묵의 원에 대한 사실성에 대한 연구 성과는 돋보이나¹²⁾ 전경에 나타난 진묵 사후 서양의 문화 계발에 역사케 되는 과정과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진묵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오늘날의 서양문명이 동양의 유불선 도통신에 의해 가능했다는 전경의 내용은 서양문명과 동양의 유불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더 필요로 한다.

진묵의 원(冤)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해보면 진묵을 서가여래의 화신으로 보는 불교

6) 박미정, 「17世紀 朝鮮王朝 十六羅漢像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7)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2』, 이학사, 2005.

8) 이지관, 「나반신앙고」, 『가산학보 8』, 가산불교문화진흥회, 1999

9) 김월덕, 「전북지역 구비설화에 나타난 영웅인식」,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10) 조용현, 사찰과 암자 이야기-서방산 봉서사와 진묵대사(하)-전북일보

11) 김명선, 「震默大師 說話 研究- 儒佛 갈등을 中心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12) 이승목, 「진묵의 생애」, 『상생의 길3』, 대순진리회출판부, 2005

계의 연구는 진묵의 원을 진묵의 전생과 연관되어 연구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사회학적 연구는 진묵의 원이 개인의 원을 떠나 사회적 원을 반영하는 원이 되기도 함을 보여주지만 아직 의혹이 남는 점이 있다. 이제 선행연구의 장점을 살리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진묵의 후일담, 진묵과 관련될 수 있는 과거사, 진묵의 일대기의 순으로 진묵의 뜻과 원의 성격, 그리고 원의 크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3. 진묵의 뜻, 원의 성격, 원의 크기

1) 서양의 문화계발과 진묵의 원의 크기

진묵의 원은 전경 속의 인물 중 원의 실체를 파악하기 가장 어려우므로 원의 3요소라 할 수 있는 진묵의 뜻과 원의 성격, 원의 크기, 노력의 정도 중 가장 실체를 먼저 느낄 수 있는 원의 크기, 진묵의 뜻과 원의 성격, 노력이라는 역순으로 접근한다.

전경에 나타난 진묵의 원의 크기는 전경에 나타난 대로 진묵이 데려간 유불선 도통신이 서양 문화 계발의 원동력이 되었느냐하는 점부터 시작한다. 진묵이 데려간 유불선 도통신이 서양 문화 계발의 원동력이었음을 증명해야 진묵이 한국에서 문화계발을 하지 못한 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 효과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면 투자 유치에 실패한 사람의 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이치와 같다.

먼저 유불선 도통신이 서양의 근대 인문사회과학의 원동력이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연구의 경우에는 최근 유럽, 미국, 중국, 한국에서 매우 활발한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 파리7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철학으로 간주되는 들뢰즈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프랑수아 줄리앙¹³⁾,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의 세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공정의 선두주자인 주검지¹⁴⁾, 미국에서는 종속이론으로 유명했던 프랑크¹⁵⁾, 한국에선 대표적인 진보사회학자이자 동양철학 연구자인 황태연¹⁶⁾ 등을 들 수 있다. 마테오 리치가 번역한 동양의 고전들이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근대문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100년전의 『전경』의 글은 이제 동서양 공히 인정받고 있다.

동양의 유불선이 근대 자연과학의 원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원자가 미니블랙홀이며 태극과 같은 이중토러스 운동을 하며 그 밀도 질량 운동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벨기에에서 개최된 2009년 세계물리학회에 최고논문상을 수상한 나썸 하라미의 홀로프랙탈 우주이론¹⁷⁾, 근대 자연과학의 주요개념인 입자, 질량, 밀도, 힘, 물질이론이 음양오행과 같은 개념이라는 프랑스 구조주의와 한국 철학자들의 연구를 들 수 있다.¹⁸⁾ 이슬람과 중국에 비해 가장 낙후된 유럽에서 과학이 발생한 수수께끼에 대해 최근 학계는 유럽으로 전래된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다음 유불선과 음양오행의 관계를 전경에서 살펴보면 유불선은 음양오행과 밀접하게 나타나

13) 프랑수아 줄리앙,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도덕의 기초를 세우다, 루소 칸트)』 (한울 아카데미, 2009)

14) 주검지,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청계, 2010)

15) 안드레 군터 프랑크(1998), 『리오리엔트』(이산, 2003)

16) 황태연, 『공자와 세계』(1-5) (청계, 2011)

17) Haramein, N. The Schwarzschild Proton (AIP Conference Proceedings Series, Vol.1303 No.-, 2010, <http://www.youtube.com/watch?v=3tmlznWA-jw> <http://www.youtube.com/watch?v=QNcCL5TDpDw>

18) 프랑스의 깡길렘, 바슐라르, 푸코, 쥘베르 뒤랑과 한국의 김동렬, 오광길 등이다.

고 진묵은 음양오행과 깊이 연관되어 나타난다. 먼저 음양오행과 유불선이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은 포태양생육대¹⁹⁾가 선불유와 연관된다는 구절과 12지와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구절²⁰⁾이다. 만물이 무극태극이라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유불선 또한 음양오행과 연관된다. 특히 유불선은 오선위기, 사명당과 연관되어 나타나므로 오행과 관련된 사명당에서 유불선과 오행과의 연관을 찾을 수 있다.

음양오행이 진묵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구절을 살펴보면 이목구비총명도통²¹⁾과 진묵의 한국 사랑과 관련된 부분을 들 수 있다. 이목구비총명도통의 경우 고견원려알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목구비는 오행에 해당한다. 진묵의 한국 사랑의 경우 유불선의 근원은 음양오행인데 한국이 음양오행의 종주국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국보다 음양오행이 생활화된 한국은 오늘날 학계에서는 음양오행의 기원이 인도-유럽어족의 기원에까지 기원한다고 한다. 한국 음양오행의 상고적 기원은 진묵과 관련된 과거사 부분과도 연관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진묵의 원의 크기를 살펴본다면 유불선 중 특히 불법으로써 음양오행의 도통을 주관하는 진묵은 천상에서 배워온 음양오행의 유불선 과학을 음양오행의 종주국인 한국에 전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서양에 음양오행을 전해주게 되어 오늘날 과학문명의 크기만큼 큰 원을 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진묵과 관계된 과거사와 진묵의 뜻과 원의 이타적 성격

가. 서가여래의 오백대원

진묵의 뜻과 원의 이타적 성격은 진묵의 일대기나 전경에서 상세히 언급되지 않으므로 진묵과 관련된 과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진묵과 관계된 과거사는 후천 불교의 종장으로써 석가의 화신이라는 불교의 연구와 한국과 도통신에 관련한 새로운 관점의 역사 연구로 풀릴 수 있다. 먼저 석가의 화신이라는 불교적 연구와 관련된 진묵의 뜻과 원의 이타적 성격은 세상을 불국토인 지상천국으로 만들고자 한 서가여래의 오백대원과 관계있다 할 수 있다. 진묵이 석가의 화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교에서 서가여래에 버금가는 존재로써 인정받는바 서가여래가 가지고 있던 500가지 원인 오백대원을 통해 전경에 진묵만이 도통신을 거느리거나 문화개발에 역사하고자 했던 이유가 이해되게 된다. 불경 『비화경』에는 서가여래의 오백대원은 세계의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행복하게 미륵이 계시는 곳에 살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진묵이 서가의 화신이라면 전생에 서가여래로서 정신적 불국토의 기반을 쌓았고 후세에 천상묘법으로써 물질적 기반을 이루고자 했다 할 수 있다.

나, 아라한과 나반존자

다음 한국과 도통신을 통한 문화개발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석가의 화신인 진묵이 한국을 택한 이유는 진묵이라는 이름, 진묵의 일대기에 나타나는 아라한과 연관된 한국의 나반존자 신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제생43절.

20)교운1장48절

21)제생43절.

먼저 진묵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진(震)나라(우리나라의 삼한 중 한나라의 옛이름)의 적묵(寂默), 곧 해동의 서가모니라는 뜻으로 석가모니 한역이 능인(能仁)적묵(寂默)인 것과 같은 이치다.²²⁾

다음 진묵의 일대기에 나타나는 아라한과 그와 연관된 나반존자신앙을 살펴보면 왜 진묵이 한국의 선경개발 역사에 원을 품었는가를 알 수 있다. 진묵의 일대기에는 한국 불교사에 잘 나타나지 않는 16아라한이 계속 등장한다. 아라한은 서가여래의 직계제자이고 보살과 달리 미륵이 오실 때까지 불법을 수호하는 중앙관리라 할 수 있다. 진묵 설화에는 불교의 인물인 석가의 화신과 16아라한이 왜 한국에 출현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다.

아라한의 출현은 16아라한의 모체가 되는 500나한의 대표격인 나반존자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나반존자는 서가여래의 도움 없이 홀로 깨달은 분으로 서가여래가 오백대원을 가졌다면 미륵이 오실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나반존자는 서가여래와 동급이거나 그보다 훌륭하신 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반존자신앙은 한국에만 고유하며 인도에는 후대의 것으로 간주되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한국에만 나반존자신앙이 있는 것은 한국이 세계불교기원의 기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북방불기의 근거나 세계 불교연구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 불교는 한국과 연관된 북방 인도-유럽, 우랄-알타이에 모두 영향을 준 스키타이의 미트라신앙, 삼기능체계, 음양오행 사상으로 부터 출발한다. 불교의 기원이 한국이라면 서가여래의 화신과 관계되는 진묵이 다시 한국의 선경건설을 위해 지상에서 활약하실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다. 칠성과 나반-아만

진묵의 설화가 나반존자와 관련된다면 과거사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인물은 칠성과 관련된 나반-아만²³⁾이다. 나반(那般)의 뜻은 중국어의 나(那)가 의미하는 “저(that)”라는 뜻과 “일반적(一般的)”으로 라 할 때 “반(般)”이 뜻하는 “보편”이라는 의미를 합쳐 “저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나반-아만은 정식 역사서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빙성이 더해가는 한단고기에 나오는 칠성에서 내려왔다는 인류의 조상이다. 나반은 인류의 조상이므로 이름을 “저 모든 것”을 뜻하는 나반(那般)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나반은 500나한 중 나반존자의 나반(那般)과 한자도 같다.

진묵설화는 아라한과 더불어 칠성 모티브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사옥소리의 고사에서는 칠성을 숨기고 누이조카에게 복을 줄때는 칠성대제를 모셔온다. 불교에서도 과거7불은 칠성과 연관이 된다. 나반과 아만은 인류의 조상일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사랑한 조상이기도 하다. 나반과 아만은 칠성에서 최초의 인간으로 내려올 때 오백대원과 같이 지구를 지상천국으로 만들려는 큰 원을 품고 오셨다고 한다. 나반과 아만이 칠성과 과거칠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 진묵이 한국의 선경역사에 원을 품었다는 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과거사라 할 수 있다.

이상 진묵의 과거사를 통해 진묵의 뜻과 원의 성격을 살펴본다고 할 때 진묵은 부처의 화신이거나 그와 연관된 나반존자 혹은 그 위의 나반-아만과 연결되어 서가여래의 오백대원과 같은 무한히 큰 원과 연관되어 있었고 진묵의 일대기는 서가여래 시절 닦은 정신적 기반위에 물질적으로 그 원을 실현하려는 극단적인 이타적 원의 실천과정이었다고 할 수 다.

22) 진묵대사 p.29

23) 삼성기. 환단고기

3) 진묵의 일대기와 진묵의 노력

서가여래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567번의 윤회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윤회를 뺀 일생의 일대기만 살펴보기로 한다. 진묵은 서가여래와 달리 처음부터 신이한 능력을 가졌으나 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고 평생을 걸식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대한 실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진묵의 일대기는 먼저 불교 계율의 쇄신, 유불선 회통, 정신문명과 과학문명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불교 계율의 쇄신과 관련하여 진묵의 설화를 살펴보면 진묵은 불교의 계율과 속세 계율의 아슬아슬한 경계지점을 보여줌으로써 불교의 계율이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 몸으로 일깨워 준다.

먼저 가정사의 경우 진묵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어머니께 효를 다하는 방법, 누이를 가장 아껴주는 우애를 보여주며 불교에서 가정을 떠나 수도하는 장점과 속세의 장점을 훌륭하게 모두 실천한다. 또 술, 고기, 결혼과 관련된 경우에도 술을 곡차라 하고 먹은 물고기를 다시 살려내고 세상의 큰 기운이 있을 때는 활용함으로써 불가의 분리주의 속에서도 그 숨어있는 참뜻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진묵이 보여준 초세속의 불교 수행 과정은 많은 오해를 처음에 불러일으켰으나 그 오해를 감내해내고 마침내 불교와 세상이 모두 부처의 화신으로 받들게 된다.

다음 유불선 회통의 경우를 보면 진묵은 가장 천대받는 스님의 신분으로 당대 최고라 할 수 있던 김봉곡을 만나 유불회통의 모범을 보여준다. 서가의 회신으로 추앙 받지만 곡차를 거부하지 않는 진묵의 초세간행이 자칫 불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비판을 참아내며 진묵은 불법으로 유교가 불교를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한다.

불교의 쇄신과 유불선 회통에 노력한 진묵은 백일을 한정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천상의 묘법을 통한 문명화에 노력한다. 천상묘법을 통한 문명화는 진묵의 궁극적 대원이었던 바 기존의 불교 쇄신과 유불선 회통은 그 기반 작업이었다 할 수 있다. 진묵이 백일 동안 시해로써 천상에 다녀왔을 때 김봉곡에 의해 잘못될 수 있을 줄은 진묵도 예상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묵은 실천에 옮겼으나 일이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할 수 있다.

이상 진묵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진묵이 죽음으로써 평생에 걸친 온몸을 투신한 노력의 결과였던 불교의 쇄신, 유불선 회통, 한국의 문화계발이 모두 실패했기에 진묵의 원은 그 크기가 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진묵의 원은 진묵의 능력이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에 불교계와 종단에서도 그 원의 성격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전경에 나타나는 진묵의 후일담은 진묵의 일대기에 대한 이해를 더욱 더 어렵게 하였다. 진묵의 원을 이해하는데 있어 열쇠가 된 것은 진묵이 서가여래의 화신이었다는 설화와 불경에 나오는 서가여래의 오백대원이었다. 진묵이 곧 서가여래의 화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가여래의 오백대원을 통해 서가여래와 동급이거나 그에 버금간 진묵의 일대기가 서가여래의 오백대원과 같은 불법을 통한 지상천국의 실현이었으며 그 원을 위해 서가여래와 같이 오랜 세월을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목숨까지 던져가며 노력했으나 실패한 크

나큰 원을 가지고 있음을 추론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경전류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대순진리회출판부, 1974 ; 2010, 13판
 , 『대순지침』,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 『대순진리회 요람』, 대순진리회출판부, 2003

종단 내 논문

이승목, 「진목의 생애」, 『상생의 길3』, 대순진리회출판부, 2005

단행본

초의, 『진목대사유적고』

『동사열전』

조수삼, 『영당중수기』, 1833

『비화경』

강월, 『진목대사전』, 이바지, 2007.

김동화, 『한국역대고승전』, 삼성그룹, 1973.

김명선, 『진목설화연구』, 보고사, 2007.

박희선, 『진목대사』, 다나, 1989.

백운, 『진목대사』, 불광출판부, 1998.

이일영, 『진목대사소전-부편』, 부림사, 1983.

최래옥 등, 『한국구비문학대계-전북 전주시 완주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최혜숙, 『진목대사와 부설거사 그 유적지를 찾아서』, 불교정신문화원, 2003.

(진목대사유적고 포함)

논문

고석훈, 「진표·진목이야기의 특질과 전승 양상」,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김기옥, 「震默說話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김명선, 「震默大師 說話 研究- 儒佛 갈등을 中心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김방룡, 「증산교와 진목대사」, 『신종교연구 4』, 한국신종교학회, 2001.

_____, 「설화를 통해 본 진목 일옥의 삶과 사상」, 『한국불교학제44집』, 한국불교학회,
2006.

김월덕, 「전북지역 구비설화에 나타난 영웅인식」,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회,

1997.

박미정, 「17世紀 朝鮮王朝 十六羅漢像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박윤희, 「진묵 일옥 일화 연구: 유적고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소, 2005.

_____, 「震默 一玉의 禪風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정륜, 「모악산과 불교: 진표율사와 진묵대사를 중심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이선이(태경), 「『震默禪師遺蹟攷』에 보이는 經典名과 그 의미」 『정토학연구제16집』, 한국정토학회, 2011.

이지관, 「나반신앙고」, 『가산학보 8』, 가산불교문화진흥회, 1999

유병덕 외, 「호남지역의 진묵(震默)신앙 유포현황과 그 민중적 성격」, 『한국종교 21권』,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6.

차차석, 「震默一玉의 선사상과 그 연원 고찰」, 『불교연구 34권』, 한국불교연구원, 2011.

최경현, 완주 大院寺 소장 <震默大師 眞影>에 대한 小考」 『문화사학제35집』, 한국문화사학회, 2011.

최영성, 「鄭汝立의 생애와 사상 - 반주자학적 성향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7권』, 동양고전학회, 2009.

황의동, 「진묵대사와 유교와의 대화」, 『한국사상과 문화 56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기사

조용현, 사찰과 암자 이야기-서방산 봉서사와 진묵대사(하)-전북일보

채록자

김명선, 『진묵설화연구』, 보고사, 2007

정세문, 순창군 구림면 91채록

김용길 김제군 금산면 92채록

김홍진 완주군 상관면 92채록

이인순 완주군 구이면 92채록

이연순 완주군 구이면 92채록

법원 완주군 용진면 92채록

호산 완주군 용진면 92채록

김광현 완주군 용진면 91채록

추복용 전주시 동완산면 92채록

유동석 전주시 동서학동 92채록

김갑례 완주군 상관면 92채록

추복용 전주시 동완산면 92채록

윤보살 익산군 춘포면 92채록

김판님 완주군 봉동읍 92채록

최규선 완주군 용진면 92채록

자료 1. 진묵의 일대기²⁴⁾

시기	장소	사건	설화/구전/소설	출전
1552 (명종7년)		마테오리치 탄생		
1562(1세) (명종17년)	만경 불 거촌 ²⁵⁾	진묵 탄생		동 ²⁶⁾ ,유
			불거촌 초목 3년 시듬 ²⁷⁾	
			복숭아 태몽 ²⁸⁾	법원,김판님,
			고시례 전설	조갑술
			연화부수(蓮花浮水) '천년향화 불 절지지'(千年香火 不絕之地)	
			진묵사, 조양사 창건 ²⁹⁾	
1568(7세) (선조1년) ³⁰⁾	봉 서 사 ³¹⁾	출가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어 절에 떼어 놓으셨을 것.	진 ³²⁾ ,유,동
	운문암	동자승 시절	신장단(神將壇)소향예배(燒香禮 拜)하는 소임 중 주지에게 현몽하 여 중단 ³³⁾	법원,
			진묵대사부도 ³⁴⁾	
			진묵전 ³⁵⁾ 창건	
1575(14세) (선조1년)	봉서사	스승 회 선사 입적 3년상	3년상 후 월명암으로 이동	소설 진묵대사,유
1578(17세) (선조4년)	변산 월명암	8년간 수도	진여, 혜성 등과 같이 수도	
			월명암 안거와 능엄 삼매 ³⁶⁾	유
1584(24세) (선조12년)	봉서사	깨달은 후 봉 서사 중흥		
			삶은 고기 먹고 산 고기 내놓는 중태기 일화 ³⁷⁾	유,동,법원,김판님,
			해인사 불끄기 ³⁸⁾	유,동,법원
1585(25세) (선조18년)	청량산 목 부 암 ³⁹⁾	암자 중흥		
			나한이 낙수천의 사미로 등장해 중간에 테스트를 함 ⁴⁰⁾	유,동
			청신녀(아들 못낳은 여자) 득남 ⁴¹⁾	
			사육소리 ⁴²⁾	유
			대사의 곡차와 불음주 ⁴³⁾	유,동
			목부암의 불빛 ⁴⁴⁾	유,동
			부흥 후 원등암으로 절 이름 바 꿈	
1587(26세) (선조20년)	일출암	나한 등장 후 이동		
			혜성을 다시 만나고 왜목촌에 어	유,동

24) 이 일대기는 백운의『진묵대사』(불광출판부, 1998)를 중심으로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했고 백운 또한 설화의 내용을 최대한 사실에 맞추어 임의로 편집했다.

25) 전북 김제시 만경을 화포리 431 (최해숙,2003, p.47) 불개마을(지금의 화포에 해당) 당제산. 불포

			머니를 모셔옴(왜막 촌 모기 ⁴⁵⁾)	
1589(28세) (선조22년)		정여립의 난	김제 금산사 1,000여명 서울압송	
1590(29세) (선조23년)	창원 마 상 포 (馬上浦)	기춘 만남		유,동
			시동 기춘이와의 인연 ⁴⁶⁾	
	김제 망 해사		굴이 아니고 석화 ⁴⁷⁾	
1591(30세)		어머니돌아가 심		
			胎中十月之恩을 何以報也리요, ⁴⁸⁾	유
			누이동생 말음, 누이동생 결혼시 킴	
1592(31세) (선조25년)		임진왜란 ⁴⁹⁾		
1601(40세) (선조35년)		누이와의 우애		
			누이를 위해 술 대신 소금간수를 먹음.	
			누이이웃 주모친구 기생의 인 연 ⁵⁰⁾	유,동
			하늘은 이불이요 땅은 자리로다 (격외 장부의 계송)	
			누나의 귀향길을 해를 멈춰 비춤	김광현,김용길,
			누나의 자식들을 부자 만들어주 려다 조카가 복을 못 받음. ⁵¹⁾	칠성
1603(42세) (선조37년)	상운암			
			상운암의 살아 있는 소상 ⁵²⁾	유,동
			송광사의 주장자와 무량사의 수 주 ⁵³⁾	유,동
1607(46세) (선조41년)	대원사			
			기춘 국수사건	유,동
			밀기울 공양 ⁵⁴⁾	유,동,법원
			소금을 보내 엽사의 허기를 달 램 ⁵⁵⁾	유,동
1608(47세) (선조42년)		김봉곡과 교 유 ⁵⁶⁾		
			봉곡 선생의 음식 공양과 허공의 영기 ⁵⁷⁾	유,동
			봉곡 선생과 강목 1절 ⁵⁸⁾	유,김광현,법원,추복 룡,김광현,김용길,서 영준,김용철,
1610(49세) (선조44년)		마테오리치 사 망		
1633(72세) (인조11년)		10월28일 입적		
			석가불의 그림자	유,동
			서산대사 ⁵⁹⁾ ,	유,동
			곡차제사 ⁶⁰⁾	
1636(75세)		병자호란		

(인조14년)				
2010			제1회 진목조사 사상 학술대회 완주군 삼례읍	

육지의 땅 끝에 위치한 마을, 서해의 기운이 강하게 서려 있는 곳에서 성모 고씨 (조의씨調意氏)의 몸을 빌어 진목은 태어났다. 오늘의 화포리는 옛날 불거촌(佛居村)이었으니 불개(火浦)에서 유래된 말로서 부처님이 살고 있는 곳이란 뜻이다. 대사는 어렸을 때 부친을 여의고 외로운 환경에서 족성(族姓)과 세계(世系)를 전하지 못한다. 마을은 바다와 육지가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집 앞산은 크지도 작지도 않고 겹겹이 그림자처럼 산과 산이 물려 있어 영산으로 아롱거리고 있으며 좌우에는 평원과 바다가 서로 닿아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경이롭다. 그런 곳에서 대사는 어린 시절을 보낸다. 생가 터 일대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고, 당제산은 주산이 동쪽 청학산에서부터 산맥을 이어 산봉우리가 실낱같은 선으로 살어나 마치 물 위에 뜬 수련의 잎처럼 형상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진목대사의 생가 터 일대에서 북쪽 수방(水方)에 성모를 모셨는데, 그곳이 바로 연화부수(蓮花浮水)로서 명당의 기운이 어려 천년 동안 자손이 없어도 술과 향과 꽃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전해진다. 언뜻 봐서는 허름해 보이는 곳, 낮고 평범해 보이는 척박한 땅에 사실은 연화대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진목의 어머니 산소에 술과 향을 올리고 별초를 해주면 집안의 우환이 사라진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 때 이후로 논에서 일을 하다가 음식을 먹을 때면 잊지 않고 성모 고씨를 향해 풍년 기원의 뜻으로 한 수저씩 떠 놓으며 "고씨네"하고 부르던 풍습이 점차 변하여 "고시래"로 전해지고 있다. 연화부수는 서해의 기운을 모두 담은 곳이다. 다시 말해 서해의 발원지로 어마어마한 기운을 담고 있다. 생기를 아무리 퍼가도 마르지 않는 천 년의 뿌리가 숨쉬는 곳이다. 그리고 산소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청학산인데, 청학은 음역하여 보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천상의 새이므로 이는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해주는 새를 바라보는 성모야말로 극락에 오르기 위해 연화대에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청학이 성모를 안아 극락으로 인도하니 절묘한 명당의 이치라 할 것이다. 또 그곳에서 반경 30m 안에 들어 있는 영혼은 극락에 오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연화부수는 진목대사가 직접 어머니의 묘소를 보아 준 것이라 한다. 약 4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진목대사 어머니의 묘소에 참배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을 보면 진목대사의 심안과 미래를 내다보는 도력이 심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6) 진목대사유적고(유), 동사열전(동), 이하 같음
- 27) 불거촌의 초목이 3년 동안 시들었는데 불거촌의 초목이 3년 동안 시들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보고 "세상에 드문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수군대었다. 그가 태어나자 사람들은 "불거촌에서 부처님이 나셨다."라고 하였다. (전경 불가지와 연관)
- 28) 고씨가 당제산 중턱에 초가를 짓고 혼자 살고 있던 중, 빨래를 하기 위해 냇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손발을 씻으려고 깨끗한 상류의 물을 찾아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서 내려왔는지 예쁜 복숭아 한 개가 둥둥 떠 있었다. 마침 배도 고픈 터라 빨랫방망이로 복숭아를 건져 올려 입에 대자마자 달콤한 연시처럼 변하여 한 입에 다 녹아 들어가 버렸다. 그 맛이 너무 달콤하여 입맛을 다시며 집으로 돌아온 후 태기가 있어 대사를 낳았다고 한다.
- 29) 1929년 이순덕 신도가 김제군 만경면 화포리, 만경강변 단행산(丹行山) 그의 분묘 곁에 조사전(祖師殿)을 짓고 비를 세웠다. 또 묘 근처에 조양사(祖仰寺) 성모암(聖母庵)이 자리하고 있다. 이순덕화는 다년간 이묘소를 모셨는데 계룡산 신도안에서 고향인 임실로 길을 떠나는 중 진목대사 어머니 묘소 근처에서 유숙하던 중 꿈에 서편 하늘에서 희가마를 탄 스님이 내려와 쉬고가라고 한 꿈을 꾸게 된 후 다년간 묘소를 돌보게 되었다고 한다. (김기옥, 1999, p.59)
- 30) 문정왕후 이후 불교탄압이 시작되는 시기. (김기옥, 1999, p.42)
- 31)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서방산에 있는 절.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이다. 727년(성덕왕 26) 또는 736년에 해철이 창건하고 고려시대에 보조 지눌과 나옹 혜근(慧勤)이 각각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16세기 말~17세기 중기에는 진목 일옥(一玉)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절을 중창하였다. 6·25전쟁 때 모두 불타버려 폐사되었다가 1963년 호산이 대웅전과 요사채를 중건하였다. 1975년에 삼성각을 신축하고, 1979년에 대웅전, 관음전, 진목전을 새로 지었다. 문화재로는 진목대사부도(전 남유형문화재 108호)가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마을 끝에는 봉서사라는 작은 절이 있다. 태고종 사찰인데 의외로 찾는 이가 많지 않아 분위기가 호젓하고 평화롭다. 산사(山寺)답다. 신라 성덕왕 (727년) 무렵에 창건된 절이라 알려졌는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전각이 불에 타버리고 지금의 모습은 전 주지인 호산스님에 의하여 1963년부터 이어진 대대적인 불사를 통해 완성되었다. 절에는 조사전 격인 진목전이 있다. 봉서사가 유명한 것은 유명한 진목대사가 출가하고 열반에 든 곳이기 때문이다. 진목대사의 영정을 모신 곳이 진목전이다
- 32) 백운, 『진목대사』, 불광출판부, 1998
- 33) 스님은 백암사 8개 암자중 대표 암자인 운문암(雲門庵)에서 차(茶)를 끓이던 소임을 맡고 있었다. 어

느날 백양사 대중 전체에 현몽하기를 ‘운문암에서 차 끓이는 중을 조사(組師)로 모시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산밑 마을 신도들에게도 똑 같은 내용으로 현몽, 스님을 조사로 모시게 되었다. 이리하여 진묵 스님은 백양사 조실이 되어 모든 일을 처결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내가 올 때까지는 이 불상에 도금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옛 운문암 불상은 거뿔한 그들로 진묵스님이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진묵의 화독에 마구니가 다 도망가서 마을사람들에게 현몽함. (박희선, 진묵대사1, p.43)

34) 지방유형문화재 108호. 부도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 해가 갈수록 커지며 부도가 전부 희색으로 변할 때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 했다고 한다.(조용헌)

35) 봉서사 호산 스님은 김봉곡의 11대 후손 여인이 진묵전에 1994~1995년 경 불을 냈다고 한다.(김기옥, 1999, p.42)

36) 진묵이 어느 해 변산의 월명암에 있을 때 가을이 깊어지자 스님들은 모두 겨울 안거에 먹을 양식을 얻으러 산을 내려갔다. 절에는 진묵과 시자만이 산사를 지키게 되었다. 그런 중 하루는 시자가 속가의 제사 때문에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 이튿날 시자가 돌아와보니 진묵은 전날의 저녁 공양도 들지 않고 한 손에 능엄경을 든 채 깊은 삼매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다른 한손이 문간을 짚고 있었는데 간밤에 불어댄 바람으로 문이 찍어댔는지 파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시자가 놀라 천천히 삼매를 깨우자 진묵은 " 아니 왜 그냥 돌아왔느냐?" 고 하는 것이 아닌가 . 능엄의 깊은 세계는 시간조차 끊어내어 진묵의 수행력을 나타낸 것이다.

37) 월명암 8년 수행 후 자유를 깨달은 진묵은 실천으로 시험한다고 한다. 하루는 외출하였다가 봉서사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을 냇가에서 천렵을 하고 있는 사내들과 마주쳤다. 사내들은 진묵대사를 붙잡으며 술 한 잔 하라고 권하였다. 이에 진묵대사는 사양하지 않고 별걱별걱 다 마셨고 이어 권하는 물고기를 푹 고운 어죽도 맛있게 먹었다. 잘 먹었노라 인사를 하고 마저 길을 떠나는데 사내들이 진묵대사의 뒷통수를 향해 한 마디 던진다. '중이 고기를 다 먹네!' 이 말을 들은 진묵대사는 바로 바지춤을 내려 작은 물웅덩이에 변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맛있게 먹었던 물고기들이 변속에서 다시 살아나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게 아닌가. 사내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는데 유독 꼬리 없이 헤엄치는 물고기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술단지 뚜껑을 열어보아라!' 사내들이 어죽을 끓이던 술단지 뚜껑을 여니 아니나 다를까, 술단지에 물고기 꼬리가 달라붙어 있는게 아닌가! 마을에는 진묵대사가 물고기들을 살려주었다는 그 물웅덩이가 거짓말처럼 남아있다. 이 물고기는 중의 뱃속에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비늘이 없어 중태기라 하고 먹지 않는다고 한다

38) 전주 봉서사에 있던 스님이 어느 해에는 상추를 씻다가 멀리 합천 해인사에 불이 난 것을 꺾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점심 공양할 상추를 씻고 있던 진묵스님이 갑자기 상추로 물을 떠서 공중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스님이 다들 상추를 기다리느라 공양을 들지 못하고 있는데 상추를 가지고 웬 장난이냐고 타박했겠지요. 그러자 진묵스님은 "지금 해인사 장경각에 불이 나서 끄는 중"이라 말했다지요. 다른 스님은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해인사의 한 스님이 봉서사로 찾아왔다고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해인사 화재 사건이 나오고 장경각에 불이 나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비바람이 물려와 불이 꺼졌다 했겠지요. 불이 꺼진 후 살펴보니 상추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있었다지요. 그렇게 진묵스님의 이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39)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40) 전주 청량산 목부암의 나한어느 때 동자승으로 변한 나한들이 진묵스님을 골려 먹을 심산으로 깊은 시냇물을 건너면서 물이 얕다고 속여 진묵스님을 깊은 물속에 빠뜨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진묵 스님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한들에게 일갈했다지요. "너희 영산 16 나한들에게 말하니 신통과 묘용은 내 비록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나 대도는 마땅히 나 진묵에게 물어야 하리라." 奇汝靈山十六愚(기여영산십육우): 저 영산의 열 여섯 어리석은 자여 樂村齋(齊)飯幾時休(요촌재반기시휴): 마을의 잿밥을 즐길 언제 쉴 것인가 神通妙用難難及(신통묘용수난급): 신통과 묘용은 비록 따르기 어려우나 大道應問老比丘(대도응문노비구): 대도는 응당 이 늙은 비구에게 물을지어다

41) 나한전에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신녀의 소망을 들어달라고 나한들의 뺨을 때린 일화. 술을 즐겨 마신 진묵대사의 일화로 득남을 위해 백일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절을 찾아온 마을사람에게 진묵대사는 “곡차를 가져다주면 아들을 낳게 기도를 해 주겠다”고해서 마을 사람은 곡차를 가져다가 진묵 대사께 드렸으나, 가져온 술만 마실 뿐 진묵 대 사는 한 번도 법당에 들어와 기도염불을 해주지 않았다. 백일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을 사람은 진묵 대사를 찾아가 “스님께서는 곡차를 가져다주면 아들을 낳기 위한 기도를 해 주시겠다고 하고는 매일 곡차만 드시고 기도는 안 해 주시니 너무 하십니다.”라고 말을 하자 진묵대사는 “그래 그러면 내가 나한님에게 득남을 할 수 있게 부탁을 해보겠습니다.”진묵 대사는 그날로 나한전에 들어가 “이 마을에 한 보살이 아들 낳기가 소원인데 한 번만 들어주지.” 하면서 나한의 뺨을 일일이 때렸다. 그날 밤 그 보살의 꿈에 나한들이 나타나서 “진묵 대사가 우리들의 뺨을 때려서 몹시 아프니 득남의 소원은 들어 줄 테니 제발 진묵대사에게 다시는

그런 부탁은 하지 말라”라는 부탁을 하고 사라졌다. 그러나 그 마을 여인은 스님이 술을 마시는 게 못마땅해 술에 쌀겨를 띄워서 가져왔다. 진묵은 아무 소리도 않고 그 술을 훌훌 마셔버렸다. 일년 후, 그 여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동자에는 딱 쌀겨 크기 만 한 흰 점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그 후 많은 사람들이 그 절에서 기도를 한 후 신이한 영험을 보았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 42) 전주 부에 있는 한 흠포자(欠逋者 : 官物을 축낸 죄인)가 도망을 가려고 대사에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도망가는 것이 어찌 남자의 할 짓인가? 그러지 말고 나에게 공양을 올려라."고 하였다. 그를 돌려보낸 다음 대사는 주장자(?杖子)를 가지고 나한당에 들어가 차례로 나한의 머리를 세 번씩 때리며 "관리 아무의 일을 잘 도와 주라."고 하였다.그 이튿날 밤에 나한이 그 관리의 꿈속에 나타나서, "네가 구하는 바가 있으면 직접 우리들에게 말할 것이지 어째서 대사에게 말하여 우리를 괴롭히느냐?너의 소행을 보아서는 불고(不顧)하여도 가하나 대사의 명령이시니 좇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를 구해 주었다.
- 43) 곡차라고 하면 마시고 술이라고 하면 마시지 않는 것이 계행(戒行)이었는데, 어느 날 한 중이 술을 거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세 차례나 물었으나, 중이 대사를 시험하기 위하여 모두 술이라고 대답하였으므로 금강역사(金剛力士)가 그 중을 타살하였다
- 44) 절의 시주를 늘려 달라고 나한들이 진묵을 비추었다고 함.월명암에 있을 때, 불등(佛燈)이 매일 밤 목부암에서 비쳐 왔으므로 그곳으로 옮겨가서 원등암(遠燈庵)이라고 개칭하였다. 이곳은 원래 십육나한(十六羅漢)의 도량으로, 나한들이 그의 뜻을 계발하기 위하여 불빛을 비추었던 것이다.
- 45) 노모는 왜막촌에서 봉양할 적에 대사는 마을 뒤 일출암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여름이 되면 날마다 모친이 모기에 물려 고통하고있었다. 대사는 산신령에게 부탁하여 모기를 퇴치하였으니 그 뒤로부터 오늘까지 오래도록 모기에 물리는 고통이 없어졌다
- 46) 사미 시절 창원의 마상포(馬上浦)를 지나갈 때 부자집 4째딸인 한 동녀(童女)가 사랑을 느꼈으나 따를 수 없었으므로, 그녀는 죽어서 12년 뒤 남자가 된 뒤 다시 전주 대원사(大元寺)에서 만나 기춘(奇春)이라는 시동이 되었다. 대사가 그를 각별히 사랑하였는데 이것을 대중들이 비난하였다. 대사는 그것이 이락삼매행(離樂三昧行 : 일체의 즐거움에 대한 애착을 떠난 삼매행)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춘을 시켜 국수로 대중 공양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대사는 대중에게 바루를 퍼게 한 뒤 기춘으로 하여금 바늘 한 개 씩을 각자의 바루 속에 넣어 주게 하니, 대사의 바루 속 바늘은 국수로 변하여 바루를 가득 채웠으나, 다른 승려들의 바루에는 여전히 한 개의 바늘만이 있었다.
- 47) 스님이 김제 망해사에 계실 때는 바닷가 근처라 해산물들을 잘 드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굴을 따서 드시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왜 스님이 육식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지요. 그러자 스님은 이것은 굴이 아니라 석하다 그랬다지요. 굴이 돌에 붙은 모습은 영락없이 돌에 핀 꽃과 같습니다.본디 부처님이 육식자재를 금한 것은 아니었다 합니다.부처님도 걸식을 하셨는데 걸식을 하면서 고기는 빼고 또 무엇을 빼고 달라고 할 수 없었을 테니 말이지요. 그저 시주하는 사람이 주면 주는 대로 고맙게 받아먹었겠지요. 음식이란 단지 생명을 이어가는 약과 같은 것이었으니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 48) 胎中十月之恩을 何以報也리요, 膝下三年之養이 未會忘矣로소이다. 百歲上에 更加百歲라도 子之心은 猶爲嫌焉이온대 百年之內에 未滿百年이오 母之壽가 何其短也니까. 單瓢路上에 行乞一僧은 既云已母之壽가 何其 短也니까. 單瓢路上에 行乞一僧은 既云已矣어니와 橫釵矣어니와 橫釵閨中에 未婚小妹가 寧不哀哉리까. 上壇了下壇罷하니 僧尋各房하고 前山疊後山重하온대 魂歸何處이오니까. 嗚乎哀哉로소이다. [태중십월지은 하이보야 슬하삼년지양 미증망의 백세상 갡가백세 자지심 유위험엄 백년지내 미만백년 모지수 하기단야 단표로상 행걸일승 기운이모지수 하기단야 단표로상행걸일승 기운기의 횡차의 횡차규중 미혼소매 녕불애재 상단요하단파 승심각방 전산첩후산중 혼귀하쳐 명호애재]
- 49) 왜 진묵과 임진왜란에 관련된 일화는 없을까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완주군 용진면 문재두(62))
- 50) 진묵의 비범함과 신통을 목격한 주막집 여인 영란은 석란을 찾아갔다. 석란의 심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터라 진묵 같은 신통한 도인이면 석란도 마음을 열고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개차 간 것이다. 영란의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 보통 사람은 분명 아닌 것 같았다. 석란도 은근히 한번 만나보고 싶어졌다. 석란과 영란은 의기투합하여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다. 어느 날 진묵이 영란의 주막에서 곡차를 마시고 있는데 석란이 우연을 가장해서 들어왔다. 영란이 몰래 기별을 한 것이다. 이윽고 몇 잔의 곡차를 주고받다가 각본대로 석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영란은 장사 평계를 대고 일른 자리를 피했다. 이제 진묵과 석란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천하의 자재 도인 진묵과 전주의 지조 있는 명기 석란과의 대작은 이내 흥취를 더하여 노래와 춤으로 이어졌다. 진묵의 기품은 석란의 여심을 송두리째 흔들여 놓았다. 석란은 이런 큰 도인이라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진묵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다. 진묵은 기분 좋게 취해갔고 석란의 몸은 뜨거워져 가고만 있었다. 이윽고 석란은 진묵의 품을 파고들었다. 서로 부둥켜안고 춤을 덩실덩실 추

는데 서로의 육체는 아주 가깝게 밀착되었다. 석란은 진목의 몸에 자기의 온몸을 더욱 밀착시키며 유혹을 했다. 날이 더운 탓에 걸옷들을 벗은 터라 얇은 속치마 차림의 익을 대로 익은 석란의 여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은 아마 어떤 사내라고 금방 허물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석란의 흥분은 갈수록 더해갔고 애타게 진목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이때 정자 마당에 감이 떨어지는 것을 본 진목은 벌떡 일어났다. “아이쿠, 감이 떨어졌구나. 잘 익었구나.” 방금까지 무슨 일이 곧 벌어지기를 잔뜩 기대했던 석란은 어이없게도 진목이 아이처럼 좋아하며 떨어진 흥시를 맛있다고 먹는 광경을 보고 그 만 마음을 접고 말았다. 원래 총명한 석란은 진목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무에 도인임을 알아보고 자신의 욕정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진목은 흥시를 맛있게 먹고는 우물 쪽으로 가서 누덕바지를 훌랑 벗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연신 찬물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석란은 욕정을 깨끗이 비우고 역시 명기답게 다가가 진목의 등을 말없이 밀어주었다. 참으로 진목은 술 경계에 술이 없고 색 경계에 색이 없으신 여래이시다. 이 때 지은 시가 ‘하늘은 이불이요 땅은 자리로다. 산을 베개로 하고 달을 촛불로 삼아 바닷물을 곡차로 만들어 싣것 마시자. 한잔 두잔 들이키며 세상사 모두 좋네. 크게 취해 일어나서 춤을 추니 아뿔사 기나긴 소매, 곤륜산에 걸릴까.’

天食地席山爲枕 月燭雲屏海作樽 大醉居然仍起舞 却嫌長袖掛崑崙

- 51) 진목에게는 누이동생이 하나 있었고, 누이동생이 낳은 외동아들은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이 조카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복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 진목은 7월 칠석날 조카 내외를 찾아가 단단히 일러주었다. “애들아, 오늘밤 자정까지 일곱 개의 밥상을 차리도록 해라. 내 특별히 칠성님들을 모셔다가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마.” 진목이 신통력을 지닌 대도인임을 아는 조카는 삼촌이 잘 살게 해주리라 확신하고 열심히 손님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마당에다 자리를 펴고 일곱 개의 밥상을 차렸다. 밤 12시 정각이 되자 진목이 일곱 분의 손님을 모시고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같이 거룩한 모습의 칠성님은 아니었다. 한 분은 껌보요 한 분은 곰보, 절름발이요 곰배팔이요 장님이요 귀머거리들이었다. 거기에도 하나같이 눈가에는 눈곱이 잔뜩 붙어있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것이었다. ‘삼촌도 참, 어디서 저런 거지 영감들만 데리고 왔누? 췌, 덕을 보기는 다 틀려버렸네’ 조카 내외는 기분이 크게 상하여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솔뚜껑을 광광 여닫고 바가지를 서로 부딪치고 깨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자 진목의 권유로 밥상 앞에 앉았던 칠성님들은 하나, 둘 차례로 일어나 떠나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지막 칠성님까지 일어설려 하는데 진목이 다가가 붙잡고 통사정을 하였다. “철없고 박복한 조카가 아니라, 나를 봐서 한 술갈이라도 드십시오.” 일곱 번째 칠성은 진목의 체면을 보아 밥 한술을 뜨고 국 한 술갈을 먹고 반찬 한 젓가락을 집어 드신 다음 떠나갔다. 그때 진목은 조카를 불러 호통을 쳤다. “에잇, 이 시원치 않은 놈! 어찌 너는 하는 짓마다 그 모양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 칠성님들을 청하였는데, 손님들 앞에서 그런 패악을 부려 다 그냥 가시도록 만들어? 도무지 복 지을 인연조차 없다니 한심하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집을 나오다가 마지막 한 마디를 더 던졌다. “그래도 마지막 목성대군이 세 술갈을 잡수셨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은 잘 살 수 있을게다.” 이튿날 조카는 장에 나갔다가 돼지 한 마리를 헐값에 사 왔는데, 이 돼지가 며칠 지나지 않아 새끼를 열두 마리나 낳았고, 몇 달이 지나자 집안에는 돼지가 가득하게 되었다. 또 돼지들을 팔아 암소를 샀는데, 그 소가 송아지 두 마리를 한꺼번에 낳았다. 이렇게 하여 진목의 조카는 3년 동안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다. 그런데 만 3년째 되는 날 돼지우리에서 불이 나더니, 불이 소 외양간으로 옮겨 붙고 다시 안채로 옮겨 붙어,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말았다. 3년의 복이 다하자 다시 박복하기 그지없는 거지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 52) 어느 해 창운암에 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스님들이 모두 탁발나간 사이 진목은 참선에 들었다.탁발을 끝낸 스님들이 한달쯤 되어 돌아와 보니 가부좌한 진목의 얼굴과 옷자락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방안에는 먼지가 가득하였다. 그때에도 진목은 “벌써들 돌아왔느냐?”고 말할 뿐이었다.有속에서 無를 보이고 靜속에서 動을 보인 경지다.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이다.진목이 어디서 누구를 스승으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였는지 깨달음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 53) 선방에서는 결제를 하고 나면 안거 중에 산문 밖을 나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동안거에 들 어간 시월 보름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전주 송광사와 충청도 홍산의 무량사에서 불상을 조상 하는데 증사로 모셔가겠다고 스님들이 찾아왔다. 한 곳도 아니고 공교롭게 두 곳에서 동시에 청하니 둘 다 가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안거 중이어서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두 절은 이미 진행 중인 불사를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불사를 미룰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했다. 진목은 둘 다 갈 수가 없으니 송광사 스님에게 주장자를 주면서 증단 위에 세워 놓으면 아무 탈 없이 불사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무량사 스님에게는 손에 든 단주를 주었다. “이 단주를 증단(證壇)에 안치해 두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다. 그런데 두 절 모두가 한번 조성한 뒤에는 함부로 개금(改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진목은 또 무량사 스님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너희 절 화주승에게 전하라. 불상의 점안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절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라. 만일 내 말을 명심하지 않으면 큰 변이 날 줄 알아라.” 송광사에서는 진목이 시키는 대로 주장자를 증단에 세워놓았더니, 한

번 세운 그대로 밤이나 낮이나 곳곳하게 그대로 서 있었다. 송광사 스님들은 진묵의 도력에 감탄하며 불상을 조성하는 일을 무사히 진행했다. 한편 무량사에서는 진묵의 분부대로 단주를 증사가 앉는 자기에 올려놓았다. 그랬더니 단주는 마치 사람이 손으로 굴리듯이 저절로 돌아가면서 소리까지 내는 것이었다. 대중은 탄복하며 불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번 불상조성은 홍산에 사는 한 신도가 단독으로 삼천금을 내어 대웅전 삼존불상을 소성(塑成)하는 것인데, 정작 그 신도가 점안 날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거액을 내고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점안식을 마쳐버린다면 나중에 크게 서운할 일이었다. 점안일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조바심이 난 화주승이 오는 가 싶어 마중을 나갔다. 화주승이 막 사천왕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신장이 나타나 노기 띤 얼굴로 화주승을 내려다보더니 그만 철퇴로 내리쳐서, 화주승은 비명도 지를 새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대개 큰 불사를 할 때에는 호법신장이 불사하는 도량을 엄중히 지켜 잡신들이 출입을 막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도 금지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화주승은 초조한 김에 진묵의 당부를 그만 깎박하여 횡액을 당하고 만 것이다. 이튿날 그토록 기다렸던 그 신도가 절에 왔다. 대중이 어째서 늦게 왔느냐고 물었다. “저희 동네 한 사람이 개를 팔았는데, 개를 산 그 사람이 동리 앞 개울가에서 개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꿈에 갑옷 입은 신장이 나타나 하는 말이, ‘그대가 시주하여 삼존불상을 조성하는 불사는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으니 불사는 염려 말아라. 그런데 오늘 너희 동리에서 개를 잡아 부정하니, 그대는 회향 날까지는 절대로 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불사에 부정을 타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도 불의의 화를 당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회향 일을 넘기고 오늘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대중은 그가 잘한 일이라고 일러 주고 화주승이 참변을 당한 것이며, 증명법사인 진묵 도인이 미리 엄명하였던 일까지 말해주었다.

- 54) 진묵스님이 대원사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이다. 진묵스님은 재식 때마다 다만 밀기울만 물에 타서 먹을 뿐이었다. 대중은 그것이 보기 싫어서 박대하며 공양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밀기울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러자 잠시 후에 한 스님이 바리를 가지고 공중에서 나타나 진묵에게 올랐다. “밥을 보내는 것은 고마우나 몸소 가지고 올 필요까지 있겠소?” “소승은 현재 대둔산에 머물고 있는데, 막 공양을 하려는데 바리대가 저절로 움직이기에 이상하게 여겨 그것을 잡으니 알 수 없는 신력에 이끌려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스님은 향후 아침저녁으로 공양을 올릴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절에서 나왔는데, 삼시간에 자신의 절로 돌아왔다. 이로부터 밥과 바리가 오고가기를 4년이나 계속되었다고 한다. 진묵은 어느 날 대원사 스님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들의 절은 앞으로 일곱 대에 거쳐 액운을 만날 것이다.
- 55) 대사가 하루는 시자를 시켜 봉서사 남쪽 부곡(婦谷)으로 소금을 가져다주라 하니, 시자가 누구에게 주느냐고 반문하자 가보면 알 것이라고 하였다. 시자가 가서 보니 사냥꾼 여러 사람이 노루 고기를 회쳐놓고 소금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금을 받으며 “활인지불(活人之佛)이 골마다 있다 함은 이를 말한 것이다.” 하였다.
- 56) 김봉곡은 당대 진북에서 가장 이름높았던 실력자로 낙향 후 진묵의 소문을 듣게 되고 곡차를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만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 57) 봉곡은 어느 날 계집에 종을 시켜 진묵에게 음식을 보냈는데 도중에서 진묵을 만나게 되었다. 진묵은 창공을 바라보며 서성거리다가 췌는지라 계집종이 그 앞에 다가서 봉곡이 하명한 일을 전하니 진묵이 하는 말이 ‘너는 자식을 낳고 싶지 않은가?’했다. 계집에 종은 이를 거절하고 만나지 않았다. 그랬더니 진묵이 하는 말이 ‘너는 어찌 그리도 복이 박한가!’라 했다. ‘돌아가거든 봉곡 선생에게 내가 올 것이라고 여쭙어라.’ 계집에 종은 봉곡에게 복명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느지막이 도착하니 봉곡이 말하기를 ‘왜 그리도 더딘고.’ 진묵이 말하기를, ‘마침 한 조각 영특한 기운이 서쪽 끝에서 떠오는지라 이런 일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일이어서 사람을 끌어 당기어 쏘아야 할 일인데도 사람을 만나지 못한 탓으로 도리어 산만하게 불길한 끝에 흘러버릴까 염려되어서 공중 밖의 울 너머 멀리 쫓아 버리고 오느라고 절로 늦은 따름이라.’
- 58) 진묵의 열반에 대한 또 다른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진묵은 열반에 들면서 제자에게 일렀다. “내가 서천 서역국으로 대장경을 가지러 가니, 누가 와서 물어도 내 몸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진묵은 그로부터 누워서 자는 사람처럼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 어느 날 봉곡은 하도 진묵의 소식이 없어서 봉서사로 진묵을 찾아왔다. “스님 어디 가셨는가?” “출타하셨습니다.” “출타를 하면 반드시 내 집을 들러서 가곤 했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 봉곡은 억지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진묵은 반듯이 누운 채 잠자는 것처럼 꼼짝 않고 있었다. “누우신지 얼마나 되었는가?” “백 일 째입니다.” “이 사람들이야. 스님은 죽으면 화장하는 것이니, 그만 불살라 버리게.” 그리하여 진묵의 육신을 화장하여버렸다. 그런데 진묵이 팔만대장경을 다 외워 돌아와 보니 자기의 육신이 없어져버렸다. 제자들에게 경전만 읽어 외우게 하고 도로 돌아가면서 봉곡 가족들에게 말했다. “자네들이 내 육신에 이렇게 피해를 입혔으니, 자네 자손들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물 때문에 고생할 것일세.” 과연 그 뒤로 산의 물줄기가 바뀌어 농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했다고 한다.
- 59) 열반하실 때가 되자 진묵스님은 제자들을 모아 놓고 “내가 몇월 몇일에 열반에 들어야겠으니 준비를

자료 1. 진묵의 일대기⁶¹⁾

시기	장소	사건	설화/구전/소설	출전
1552 (명종7년)		마테오리치 탄 생		
1562(1세) (명종17년)	만경 불 거촌 ⁶²⁾	진묵 탄생		동 ⁶³⁾ ,유
			불거촌 초목 3년 시듬 ⁶⁴⁾	
			복숭아 태몽 ⁶⁵⁾	법원,김판님,
			고시례 전설	조갑술
			연화부수(蓮花浮水) '천년향화 불 절지지'(千年香火 不絕之地)	
			진묵사, 조양사 창건 ⁶⁶⁾	
1568(7세) (선조1년) ⁶⁷⁾	봉 서 사 ⁶⁸⁾	출가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어 절에 떼어 놓으셨을 것.	진 ⁶⁹⁾ ,유,동
	운문암	동자승 시절	신장단(神將壇)소향예배(燒香禮 拜)하는 소임 중 주지에게 현몽하 여 중단 ⁷⁰⁾	법원,
			진묵대사부도 ⁷¹⁾	
			진묵전 ⁷²⁾ 창건	
1575(14세) (선조1년)	봉서사	스승 회 선사 입적 3년상	3년상 후 월명암으로 이동	소설 진묵대사,유
1578(17세) (선조4년)	변산 월명암	8년간 수도	진여, 혜성 등과 같이 수도	
			월명암 안거와 능엄 삼매 ⁷³⁾	유
1584(24세)	봉서사	깨달은 후 봉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 어린 사미승이 "스님!, 그 날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정초여서 어려운 일
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묵스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도 그럴 듯해서 "그러면 어
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그러자 사미승이 그 다음날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 날짜가 닥쳐오니 스님이 또 내일은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제자들은 이번에도 그 날은 큰 49재
가 들어왔는데 스님께서그 날 돌아가시면 49재와 겹치게 되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은 일리가 있으시다면서 "그러면 49재 지나고 가야겠구나"하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날이
되자 진묵스님은 삭발 목욕 끝에 옷을 갈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대문 밖 개천가 에 서서 시자에게
물 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석가불의 그림자다] 고 하니, 시자가 말하되 [저
것은 스님의 그림자가 아닙니까?] [너는 어찌 나의 가상만 알고 석가의 진신을 보지 못하는가?]라고
말씀하신 다음, 방에 들어가 가부좌를 맺고 제자들을 불러 [내가 곧 입적할테니 너희들이 질문할 것
이 있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다. 제자들이 묻기를 [스님은 누구의 법맥을 이어 받았습니
까?] 하니, 조금 있다가 [무엇을 따로 이을 것이 있겠는가] 제자들이 절하고 다 시 청함에 부득이 말
하기를 [비록 명리승이긴 하지만, 서산 스님의 법을 원사하였다] 하고 조용히 열반하였으니, 1633년
10월 18일이었다. 김봉곡의 일과는 서로 반대되는 기록이다

60) 아직도 송화백일주를 빛어 진묵대사 기일(음력 10월28일)에 제주로 올린다

61) 이 일대기는 백운의『진묵대사』(불광출판부, 1998)를 중심으로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했고 백운
또한 설화의 내용을 최대한 사실에 맞추어 임의로 편집했다.

(선조12년)		서사 중흥		
			삶은 고기 먹고 산 고기 내놓는 중태기 일화 ⁷⁴⁾	유,동,법원,김판님,
			해인사 불끄기 ⁷⁵⁾	유,동,법원
1585(25세) (선조18년)	청량산 목 부 암 ⁷⁶⁾	암자 중흥		
			나한이 낙수천의 사미로 등장해 중간에 테스트를 함 ⁷⁷⁾	유,동
			청신녀(아들 못낳은 여자) 득남 ⁷⁸⁾	
			사옥소리 ⁷⁹⁾	유
			대사의 곡차와 불음주 ⁸⁰⁾	유,동
			목부암의 불빛 ⁸¹⁾	유,동
			부흥 후 원등암으로 절 이름 바 꿈	
1587(26세) (선조20년)	일출암	나한 등장 후 이동		
			혜성을 다시 만나고 왜목촌에 어 머니를 모셔옴(왜막 촌 모기 ⁸²⁾)	유,동
1589(28세) (선조22년)		정여립의 난	김제 금산사 1,000여명 서울압송	
1590(29세) (선조23년)	창원 마 상 포 (馬上浦)	기춘 만남		유,동
			시동 기춘이와의 인연 ⁸³⁾	
	김제 망 해사		굴이 아니고 석화 ⁸⁴⁾	
1591(30세)		어머니돌아가 심		
			胎中十月之恩을 何以報也리요, ⁸⁵⁾	유
			누이동생 말음, 누이동생 결혼시 킴	
1592(31세) (선조25년)		임진왜란 ⁸⁶⁾		
1601(40세) (선조35년)		누이와의 우애		
			누이를 위해 술 대신 소금간수를 먹음.	
			누이이웃 주모친구 기생의 인 연 ⁸⁷⁾	유,동
			하늘은 이불이요 땅은 자리로다 (격외 장부의 계송)	
			누나의 귀향길을 해를 멈춰 비춘	김광현,김용길,
			누나의 자식들을 부자 만들어주 려다 조카가 복을 못 받음. ⁸⁸⁾	칠성
1603(42세) (선조37년)	상운암			
			상운암의 살아 있는 소상 ⁸⁹⁾	유,동
			송광사의 주장자와 무량사의 수 주 ⁹⁰⁾	유,동
1607(46세) (선조41년)	대원사			

			기준 국수사건	유,동
			밀기울 공양 ⁹¹⁾	유,동,법원
			소금을 보내 엽사의 허기를 달 램 ⁹²⁾	유,동
1608(47세) (선조42년)		김봉곡과 교 유 ⁹³⁾		
			봉곡 선생의 음식 공양과 허공의 영기 ⁹⁴⁾	유,동
			봉곡 선생과 강목 1절 ⁹⁵⁾	유,김광현,법원,추복 룡,김광현,김용길,서 영준,김용철,
1610(49세) (선조44년)		마테오리치 사 망		
1633(72세) (인조11년)		10월28일 입적		
			석가불의 그림자	유,동
			서산대사 ⁹⁶⁾ ,	유,동
			곡차제사 ⁹⁷⁾	
1636(75세) (인조14년)		병자호란		
2010			제1회 진묵조사 사상 학술대회 완주군 삼례읍	

62)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431 (최혜숙,2003, p.47) 불개마을(지금의 화포에 해당) 당제산. 불포 육지의 땅 끝에 위치한 마을, 서해의 기운이 강하게 서려 있는 곳에서 성모 고씨 (조의씨調意氏)의 몸을 빌어 진묵은 태어났다. 오늘의 화포리는 옛날 불거촌(佛居村)이었으니 불개(火浦)에서 유래된 말로서 부처님이 살고 있는 곳이란 뜻이다. 대사는 어렸을 때 부친을 여의고 외로운 환경에서 족성(族姓)과 세계(世系)를 전하지 못한다. 마을은 바다와 육지가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집 앞산은 크지도 작지도 않고 겹겹이 그림자처럼 산과 산이 물려 있어 영산으로 아롱거리고 있으며 좌우에는 평원과 바다가 서로 닿아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경이롭다. 그런 곳에서 대사는 어린 시절을 보낸다. 생가 터 일대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고, 당제산은 주산이 동쪽 청학산에서부터 산맥을 이어 산봉우리가 실날같은 선으로 살이나 마치 물 위에 뜬 수련의 잎처럼 형상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진묵대사의 생가 터 일대에서 북쪽 수방(水方)에 성모를 모셨는데, 그곳이 바로 연화부수(蓮花浮水)로서 명당의 기운이 여러 천년 동안 자손이 없어도 술과 향과 꽃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전해진다. 언뜻 봐서는 허름해 보이는 곳, 낮고 평범해 보이는 척박한 땅에 사실은 연화대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진묵의 어머니 산소에 술과 향을 올리고 별초를 해주면 집안의 우환이 사라진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 때 이후로 논에서 일을 하다가 음식을 먹을 때면 잊지 않고 성모 고씨를 향해 풍년 기원의 뜻으로 한 수저씩 떠 놓으며 "고씨네"하고 부르던 풍습이 점차 변하여 "고시래"로 전해지고 있다. 연화부수는 서해의 기운을 모두 담은 곳이다. 다시 말해 서해의 발원지로 어마어마한 기운을 담고 있다. 생기를 아무리 퍼가도 마르지 않는 천 년의 뿌리가 숨쉬는 곳이다. 그리고 산소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청학산인데, 청학은 음역하여 보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천상의 새이므로 이는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해주는 새를 바라보는 성모야말로 극락에 오르기 위해 연화대에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청학이 성모를 안아 극락으로 인도하니 절묘한 명당의 이치라 할 것이다. 또 그곳에서 반경 30m 안에 들어 있는 영혼은 극락에 오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연화부수는 진묵대사가 직접 어머니의 묘소를 보아 준 것이라 한다. 약 4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진묵대사 어머니의 묘소에 참배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을 보면 진묵대사의 심안과 미래를 내다보는 도력이 심후하였음을 알 수 있다

63) 진묵대사유적고(유), 동사열전(동), 이하 같음

64) 불거촌의 초목이 3년 동안 시들었는데 불거촌의 초목이 3년 동안 시들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보고 “세상에 드문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수군대었다. 그가 태어나자 사람들은 “불거촌에서 부처님이 나셨다.”라고 하였다. (진경 불가지와 연관)

65) 고씨가 당제산 중턱에 초가를 짓고 혼자 살고 있던 중, 빨래를 하기 위해 냇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손발을 씻으려고 깨끗한 상류의 물을 찾아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서 내려왔는지 예쁜 복숭아 한 개가 둥둥 떠 있었다. 마침 배도 고프니 빨랫방망이로 복숭아를 건져 올려 입에 대자마자

- 달콤한 연시처럼 변하여 한 입에 다 녹아 들어가 버렸다. 그 맛이 너무 달콤하여 입맛을 다시며 집으로 돌아온 후 태기가 있어 대사를 낳았다고 한다.
- 66) 1929년 이순덕 신도가 김제군 만경면 화포리, 만경강변 단행산(丹行山) 그의 분묘 곁에 조사전(祖師殿)을 짓고 비를 세웠다. 또 묘 근처에 조양사(祖仰寺) 성모암(聖母庵)이 자리하고 있다. 이순덕화는 다년간 이묘소를 모셨는데 계룡산 신도안에서 고향인 임실로 길을 떠나는 중 진묵대사 어머니 묘소 근처에서 유숙하던 중 꿈에 서편 하늘에서 희가마를 탄 스님이 내려와 쉬고가라고 한 꿈을 꾸게 된 후 다년간 묘소를 돌보게 되었다고 한다. (김기옥, 1999, p.59)
- 67) 문정왕후 이후 불교탄압이 시작되는 시기. (김기옥, 1999, p.42)
- 68)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서방산에 있는 절.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이다. 727년(성덕왕 26) 또는 736년에 해철이 창건하고 고려시대에 보조 지눌과 나옹 혜근慧勤이 각각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16세기 말~17세기 중기에는 진묵 일옥一玉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절을 중창하였다. 6·25전쟁 때 모두 불타버려 폐사되었다가 1963년 호산이 대웅전과 요사채를 중건하였다. 1975년에 삼성각을 신축하고, 1979년에 대웅전, 관음전, 진묵전을 새로 지었다. 문화재로는 진묵대사부도(전남유형문화재 108호)가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마을 끝에는 봉서사라는 작은 절이 있다. 태고종 사찰인데 의외로 찾는 이가 많지 않아 분위기가 호젓하고 평화롭다. 산사(山寺) 답다. 신라 성덕왕 (727년) 무렵에 창건된 절이라 알려졌는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전각이 불에 타버리고 지금의 모습은 전 주지인 호산스님에 의하여 1963년부터 이어진 대대적인 불사를 통해 완성되었다. 절에는 조사전 격인 진묵전이 있다. 봉서사가 유명한 것은 유명한 진묵대사가 출가하고 열반에 든 곳이기 때문이다. 진묵대사의 영정을 모신 곳이 진묵전이다
- 69) 백운, 『진묵대사』, 불광출판부, 1998
- 70) 스님은 백암사 8개 암자중 대표 암자인 운문암(雲門庵)에서 차(茶)를 끓이던 소임을 맡고 있었다. 어느날 백암사 대중 전체에 현몽하기를 '운문암에서 차 끓이는 중을 조사(組師)로 모시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산밑 마을 신도들에게도 똑 같은 내용으로 현몽, 스님을 조사로 모시게 되었다. 이리하여 진묵 스님은 백암사 조실이 되어 모든 일을 처결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내가 올 때까지는 이 불상에 도금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옛 운문암 불상은 거뭇한 그늘로 진묵스님이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진묵의 화독에 마구니가 다 도망가서 마을사람들에게 현몽함. (박희선, 진묵대사1, p.43)
- 71) 지방유형문화재 108호. 부도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 해가 갈수록 커지며 부도가 전부 희색으로 변할 때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 했다고 한다. (조용헌)
- 72) 봉서사 호산 스님은 김봉곡의 11대 후손 여인이 진묵전에 1994~1995년 경 불을 냈다고 한다. (김기옥, 1999, p.42)
- 73) 진묵이 어느 해 변산의 월명암에 있을 때 가을이 깊어지자 스님들은 모두 겨울 안거에 먹을 양식을 얻으러 산을 내려갔다. 절에는 진묵과 시자만이 산사를 지키게 되었다. 그런 중 하루는 시자가 속가의 제사 때문에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 이튿날 시자가 돌아와보니 진묵은 전날의 저녁 공양도 들지 않고 한 손에 능엄경을 든 채 깊은 삼매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다른 한손이 문간을 짚고 있었는데 간밤에 불어댄 바람으로 문이 찍어댔는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시자가 놀라 천천히 삼매를 깨우자 진묵은 " 아니 왜 그냥 돌아왔느냐?" 고 하는 것이 아닌가. 능엄의 깊은 세계는 시간조차 끊어내어 진묵의 수행력을 나타낸 것이다.
- 74) 월명암 8년 수행 후 자유를 깨달은 진묵은 실천으로 시험한다고 한다. 하루는 외출하였다가 봉서사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을 냇가에서 천렵을 하고 있는 사내들과 마주쳤다. 사내들은 진묵대사를 붙잡으며 술 한 잔 하라고 권하였다. 이에 진묵대사는 사양하지 않고 별걱별걱 다 마셨고 이어 권하는 물고기를 꼭 고운 어죽도 맛있게 먹었다. 잘 먹었노라 인사를 하고 마저 길을 떠나는데 사내들이 진묵대사의 뒷통수를 향해 한 마디 던진다. '중이 고기를 다 먹네!' 이 말을 들은 진묵대사는 바로 바지춤을 내려 작은 물웅덩이에 변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맛있게 먹었던 물고기들이 변속에서 다시 살아나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게 아닌가. 사내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는데 유독 꼬리 없이 헤엄치는 물고기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술단지 뚜껑을 열어보아라!' 사내들이 어죽을 끓이던 술단지 뚜껑을 여니 아니나 다를까, 술단지에 물고기 꼬리가 달라붙어 있는게 아닌가! 마을에는 진묵대사가 물고기들을 살려주었다는 그 물웅덩이가 거짓말처럼 남아있다. 이 물고기는 중의 뱃속에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비늘이 없어 중태기라 하고 먹지 않는다고 한다
- 75) 전주 봉서사에 있던 스님이 어느 해에는 상추를 씻다가 멀리 합천 해인사에 불이 난 것을 꺾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점심 공양할 상추를 씻고 있던 진묵스님이 갑자기 상추로 물을 떠서 공중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스님이 다들 상추를 기다리느라 공양을 들지 못하고 있는데 상추를 가지고 웬 장난이냐고 타박했겠지요. 그러자 진묵스님은 "지금 해인사 장경각에 불이 나서 끄는 중"이라 말했대지요. 다른 스님은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해인사의 한 스님이 봉서사로 찾아왔대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해인사 화재 사건이 나오고 장경각에 불이 나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비바람이 물려와 불이 꺼졌다 했지요. 불이 꺼진 후 살펴보니 상추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있었다지요. 그렇게 진묵스님의 이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76)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77) 전주 청량산 목부암의 나한어느 때 동자승으로 변한 나한들이 진묵스님을 골려 먹을 심산으로 깊은 시냇물을 건너면서 물이 얇다고 속여 진묵스님을 깊은 물속에 빠뜨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진묵 스님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한들에게 일갈했지요."너희 영산 16 나한들에게 말하니 신통과 묘용은 내 비록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나 대도는 마땅히 나 진묵에게 물어야 하리라."奇汝靈山十六愚(기여영산십육우): 저 영산의 열 여섯 어리석은 자여 樂村齋(齊)飯幾時休(요촌재반기시휴): 마을의 잿밥을 즐길 언제 설 것인가 神通妙用雖難及(신통묘용수난급): 신통과 묘용은 비록 따르기 어려우나 大道應問老比丘(대도응문노비구): 대도는 응당 이 늙은 비구에게 물을지어다

78) 나한전에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신녀의 소망을 들어달라고 나한들의 뺨을 때린 일화. 술을 즐겨 마신 진묵대사의 일화로 득남을 위해 백일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절을 찾아온 마을사람에게 진묵대사는 "곡차를 가져다주면 아들을 낳게 기도를 해 주겠다"고해서 마을 사람은 곡차를 가져다가 진묵 대사께 드렸으나, 가져온 술만 마실 뿐 진묵 대사는 한 번도 법당에 들어와 기도염불을 해주지 않았다. 백일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을 사람은 진묵 대사를 찾아가 "스님께서서는 곡차를 가져다주면 아들을 낳기 위한 기도를 해 주시겠다고 하고는 매일 곡차만 드시고 기도는 안 해 주시니 너무 하십니다."라고 말을 하자 진묵대사는 "그래 그러면 내가 나한님에게 득남을 할 수 있게 부탁을 해보겠습니다."진묵 대사는 그날로 나한전에 들어가 "이 마을에 한 보살이 아들 낳기가 소원인데 한번만 들어주지." 하면서 나한의 뺨을 일일이 때렸다. 그날 밤 그 보살의 꿈에 나한들이 나타나서 "진묵 대사가 우리들의 뺨을 때려서 몹시 아프니 득남의 소원은 들어 줄 테니 제발 진묵대사에게 다시는 그런 부탁은 하지 말라"라는 부탁을 하고 사라졌다. 그러나 그 마을 여인은 스님이 술을 마시는 게 못마땅해 술에 쌀겨를 띄워서 가져왔다. 진묵은 아무 소리도 않고 그 술을 훌훌 마셔버렸다. 일년 후, 그 여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동자에는 딱 쌀겨 크기 만 한 흰 점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그 후 많은 사람들이 그 절에서 기도를 한 후 신이한 영험을 보았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79) 전주 부에 있는 한 흠포자(欠逋者 : 官物을 축낸 죄인)가 도망을 가려고 대사에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도망가는 것이 어찌 남자의 할 짓인가? 그러지 말고 나에게 공양을 올려라."고 하였다. 그를 돌려보낸 다음 대사는 주장자(?杖子)를 가지고 나한당에 들어가 차례로 나한의 머리를 세 번씩 때리며 "관리 아무의 일을 잘 도와 주라."고 하였다.그 이튿날 밤에 나한이 그 관리의 꿈속에 나타나서, "네가 구하는 바가 있으면 직접 우리들에게 말할 것이지 어째서 대사에게 말하여 우리를 괴롭히느냐?너의 소행을 보아서는 불고(不顧)하여도 가하나 대사의 명령이시니 쫓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를 구해 주었다.

80) 곡차라고 하면 마시고 술이라고 하면 마시지 않는 것이 계행(戒行)이었는데, 어느 날 한 중이 술을 거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세 차례나 물었으나, 중이 대사를 시험하기 위하여 모두 술이라고 대답하였으므로 금강역사(金剛力士)가 그 중을 타살하였다

81) 절의 시주를 늘려 달라고 나한들이 진묵을 비추었다고 함.월명암에 있을 때, 불등(佛燈)이 매일 밤 목부암에서 비쳐 왔으므로 그곳으로 옮겨가서 원등암(遠燈庵)이라고 개칭하였다. 이곳은 원래 십육나한(十六羅漢)의 도량으로, 나한들이 그의 뜻을 계발하기 위하여 불빛을 비추었던 것이다.

82) 노모는 왜막촌에서 봉양할 적에 대사는 마을 뒤 일출암에서 거거하고 있었다. 여름이 되면 날마다 모친이 모기에 물려 고통하고있었다. 대사는 산신령에게 부탁하여 모기를 퇴치하였으니 그 뒤로부터 오늘까지 오래도록 모기에 물리는 고통이 없어졌다

83) 사미 시절 창원의 마상포(馬上浦)를 지나갈 때 부자집 4째딸인 한 동녀(童女)가 사랑을 느꼈으나 따를 수 없었으므로, 그녀는 죽어서 12년 뒤 남자가 된 뒤 다시 전주 대원사(大元寺)에서 만나 기춘(奇春)이라는 시동이 되었다. 대사가 그를 각별히 사랑하였는데 이것을 대중들이 비난하였다. 대사는 그것이 이락삼매행(離樂三昧行 : 일체의 즐거움에 대한 애착을 떠난 삼매행)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춘을 시켜 국수로 대중 공양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대사는 대중에게 바루를 퍼게 한 뒤 기춘으로 하여금 바늘 한 개 씩을 각자의 바루 속에 넣어 주게 하니, 대사의 바루 속 바늘은 국수로 변하여 바루를 가득 채웠으나, 다른 승려들의 바루에는 여전히 한 개의 바늘만이 있었다.

84) 스님이 김제 망해사에 계실 때는 바닷가 근처라 해산물들을 잘 드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굴을 따서 드시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왜 스님이 육식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지요. 그러자 스님은 이것은 굴이 아니라 석화다 그랬지요. 굴이 돌에 붙은 모습은 영락없이 돌에 핀 꽃과 같습니다.분디 부처님이 육식자재를 금한 것은 아니었다 합니다.부처님도 걸식을 하셨는데 걸식을 하면서 고기는 빼고 또 무엇이 빼고 달라고 할 수 없었을 테니 말이지요. 그저 시주하는 사람이 주면 주는 대로 고맙게 받아먹었겠지요. 음식이란 단지 생명을 이어가는 약과 같은 것이었으니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85) 胎中十月之恩을 何以報也리요, 膝下三年之養이 未曾忘矣로소이다. 百歲上에 更加百歲라도 子之心은 猶爲嫌焉이온대 百年之內에 未滿百年이오 母之壽가 何其短也니까. 單瓢路上에 行乞一僧은 既云己母之壽가 何其短也니까. 單瓢路上에 行乞一僧은 既云己母어니와 橫釵어니와 橫釵閨中에 未婚小妹가 寧不哀哉리까. 上壇了下壇罷하니 僧尋各房하고 前山疊後山重하온대 魂歸何處이오니까. 嗚乎哀哉로소이다. [태중십월지은 하이보야 슬하삼년지양 미증망의 백세상 갱가백세 자지심 유위험엄 백년지내 미만백년 모지수 하기단야 단표로상 행걸일승 기운이모지수 하기단야 단표로상행걸일승 기운기의 횡차의 횡차규중 미혼소매 녕불애재 상단요하단파 승심각방 전산첩후산중 혼귀하쳐 명호애재]

86) 왜 진묵과 임진왜란에 관련된 일화는 없을까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완주군 용진면 문재두(62))

87) 진묵의 비범함과 신통을 목격한 주막집 여인 영란은 석란을 찾아갔다. 석란의 심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터라 진묵 같은 신통한 도인이면 석란도 마음을 열고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개차 간 것이다. 영란의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 보통 사람은 분명 아닌 것 같았다. 석란도 은근히 한번 만나보고 싶어졌다. 석란과 영란은 의기투합하여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다. 어느 날 진묵이 영란의 주막에서 곡차를 마시고 있는데 석란이 우연을 가장해서 들어왔다. 영란이 몰래 기별을 한 것이다. 이윽고 몇 잔의 곡차를 주고받다가 각본대로 석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영란은 장사 핑계를 대고 얼른 자리를 피했다. 이제 진묵과 석란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천하의 자재 도인 진묵과 전주의 지조 있는 명기 석란과의 대작은 이내 흥취를 더하여 노래와 춤으로 이어졌다. 진묵의 기품은 석란의 여심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놓았다. 석란은 이런 큰 도인이라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진묵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다. 진묵은 기분 좋게 취해갔고 석란의 몸은 뜨거워져 가고만 있었다. 이윽고 석란은 진묵의 품을 파고들었다. 서로 부둥켜안고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서로의 육체는 아주 가깝게 밀착되었다. 석란은 진묵의 몸에 자기의 온몸을 더욱 밀착시키며 유혹을 했다. 날이 더운 탓에 겉옷들을 벗은 터라 얇은 속치마 차림의 익을 대로 익은 석란의 여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은 아마 어떤 사내라고 금방 허물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석란의 흥분은 갈수록 더해갔고 애타게 진묵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이때 정자 마당에 감이 떨어지는 것을 본 진묵은 벌떡 일어났다. “아이쿠, 감이 떨어졌구나. 잘 익었구나.” 방금까지 무슨 일이 곧 벌어지기를 잔뜩 기대했던 석란은 어이없게도 진묵이 아이처럼 좋아하며 떨어진 흥시를 맛있다고 먹는 광경을 보고 그만 마음을 접고 말았다. 원래 총명한 석란은 진묵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무애 도인임을 알아보고 자신의 욕정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진묵은 흥시를 맛있게 먹고는 우물 쪽으로 가서 누덕바지를 훌랑 벗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연신 찬물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석란은 욕정을 깨끗이 비우고 역시 명기답게 다가가 진묵의 등을 말없이 밀어주었다. 참으로 진묵은 술 경계에 술이 없고 색 경계에 색이 없으신 여래이시다. 이 때 지은 시가 ‘하늘은 이불이요 땅은 자리로다. 산을 베개로 하고 달을 촛불로 삼아 바닷물을 곡차로 만들어 실컷 마시자. 한잔 두잔 들이키며 세상사 모두 좋네. 크게 취해 일어나서 춤을 추니 아뿔사 기나긴 소매, 곤륜산에 걸릴까.’

天食地席山爲枕 月燭雲屏海作樽 大醉居然仍起舞 却嫌長袖掛崑崙

88) 진묵에게는 누이동생이 하나 있었고, 누이동생이 낳은 외동아들은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이 조카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복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 진묵은 7월 칠석날 조카 내외를 찾아가 단단히 일러주었다. “애들아, 오늘밤 자정까지 일곱 개의 밥상을 차리도록 해라. 내 특별히 칠성님들을 모셔다가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마.” 진묵이 신통력을 지닌 대도인임을 아는 조카는 삼촌이 잘 살게 해주리라 확신하고 열심히 손님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마당에다 자리를 펴고 일곱 개의 밥상을 차렸다. 밤 12시 정각이 되자 진묵이 일곱 분의 손님을 모시고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같이 거룩한 모습의 칠성님은 아니었다. 한 분은 찜보요 한 분은 곰보, 절름발이요 곰배팔이요 장님이요 귀머거리들이었다. 거기에도 하나같이 눈가에는 눈곱이 잔뜩 붙어있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것이었다. ‘삼촌도 참, 어디서 저런 거지 영감들만 데리고 왔누? 췌, 덕을 보기는 다 틀려버렸네’ 조카 내외는 기분이 크게 상하여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솔뚜껑을 광광 여닫고 바가지를 서로 부딪치고 깨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자 진묵의 권유로 밥상 앞에 앉았던 칠성님들은 하나, 둘 차례로 일어나 떠나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지막 칠성님까지 일어설려 하는데 진묵이 다가가 붙잡고 통사정을 하였다. “절없고 박복한 조카가 아니라, 나를 봐서 한 술갈이라도 드십시오.” 일곱 번째 칠성은 진묵의 체면을 보아 밥 한술을 뜨고 국 한 술갈을 먹고 반찬 한 젓가락을 집어 드신 다음 떠나갔다. 그때 진묵은 조카를 불러 호통을 쳤다. “에잇, 이 시원치 않은 놈! 어찌 너는 하는 짓마다 그 모양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 칠성님들을 청하였는데, 손님들 앞에서 그런 패악을 부려 다 그냥 가시도록 만들어? 도무지 복 지을 인연조차 없다니 한심하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집을 나오다가 마지막 한 마디를 더 던졌다. “그래도 마지막 목성대군이 세 술갈을 잡수셨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은 잘 살 수 있을게다.” 이튿날 조카는 장에 나갔다가 돼지 한 마리를 헐값에 사 왔는데, 이 돼지가 며칠 지나지 않아 새끼를 열

두 마리나 낳았고, 몇 달이 지나자 집안에는 돼지가 가득하게 되었다. 또 돼지들을 팔아 암소를 샀는데, 그 소가 송아지 두 마리를 한꺼번에 낳았다. 이렇게 하여 진목의 조카는 3년 동안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다. 그런데 만 3년째 되는 날 돼지우리에서 불이 나더니, 불이 소 외양간으로 옮겨 붙고 다시 안채로 옮겨 붙어,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말았다. 3년의 복이 다하자 다시 박복하기 그지없는 거지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 89) 어느 해 창운암에 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스님들이 모두 탁발나간 사이 진목은 참선에 들었다.탁발을 끝낸 스님들이 한달쯤 되어 돌아와 보니 가부좌한 진목의 얼굴과 옷자락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방안에는 먼지가 가득하였다. 그때에도 진목은 "벌써들 돌아왔느냐?"고 말할 뿐이었다.有속에서 無를 보이고 靜속에서 動을 보인 경지다.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이다.진목이 어디서 누구를 스승으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였는지 깨달음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 90) 선방에서는 결제를 하고 나면 안거 중에 산문 밖을 나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동안거에 들어간 시월 보름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전주 송광사와 충청도 홍산의 무량사에서 불상을 조상하는데 증사로 모셔가겠다고 스님들이 찾아왔다. 한 곳도 아니고 공교롭게 두 곳에서 동시에 청하니 둘 다 가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안거 중이어서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두 절은 이미 진행 중인 불사를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불사를 미룰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했다. 진목은 둘 다 갈 수가 없으니 송광사 스님에게 주장자를 주면서 증단 위에 세워 놓으면 아무 탈 없이 불사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무량사 스님에게는 손에 든 단주를 주었다. "이 단주를 증단(證壇)에 안치해 두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다. 그런데 두 절 모두가 한번 조성한 뒤에는 함부로 개금(改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진목은 또 무량사 스님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너희 절 화주승에게 전하라. 불상의 점안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절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라. 만일 내 말을 명심하지 않으면 큰 변이 날 줄 알아라." 송광사에서는 진목이 시키는 대로 주장자를 증단에 세워놓았더니, 한번 세운 그대로 밤이나 낮이나 깨끗하게 그대로 서 있었다. 송광사 스님들은 진목의 도력에 감탄하며 불상을 조성하는 일을 무사히 진행했다. 한편 무량사에서는 진목의 분부대로 단주를 증사가 앉는 자기에 올려놓았다. 그랬더니 단주는 마치 사람이 손으로 굴리듯이 저절로 돌아가면서 소리까지 내는 것이었다. 대중은 탄복하며 불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번 불상조성은 홍산에 사는 한 신도가 단독으로 삼천금을 내어 대웅전 삼존불상을 소성(塑成)하는 것인데, 정작 그 신도가 점안 날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거액을 내고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점안식을 마쳐버린다면 나중에 크게 서운할 일이었다. 점안일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조바심이 난 화주승이 오는 가 싶어 마중을 나갔다. 화주승이 막 사천왕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신장이 나타나 노기 띤 얼굴로 화주승을 내려다보더니 그만 철퇴로 내리쳐서, 화주승은 비명도 지를 새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대개 큰 불사를 할 때에는 호법신장이 불사하는 도량을 엄중히 지켜 잡신들이 출입을 막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도 금지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화주승은 초조한 김에 진목의 당부를 그만 깜박하여 횡액을 당하고 만 것이다. 이튿날 그토록 기다렸던 그 신도가 절에 왔다. 대중이 어째서 늦게 왔느냐고 물었다. "저희 동네 한 사람이 개를 팔았는데, 개를 산 그 사람이 동리 앞 개울가에서 개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꿈에 갑옷 입은 신장이 나타나 하는 말이, '그대가 시주하여 삼존불상을 조성하는 불사는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으니 불사는 염려 말아라. 그런데 오늘 너희 동리에서 개를 잡아 부정하니, 그대는 회향 날까지는 절대로 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불사에 부정을 타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도 불의의 화를 당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회향 일을 넘기고 오늘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대중은 그가 잘한 일이라고 일러 주고 화주승이 참변을 당한 것이며, 증명법사인 진목 도인이 미리 엄명하였던 일까지 말해주었다.
- 91) 진목스님이 대원사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이다. 진목스님은 재식 때마다 다만 밀기울만 물에 타서 먹을 뿐이었다. 대중은 그것이 보기 싫어서 박대하며 공양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밀기울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러자 잠시 후에 한 스님이 바리를 가지고 공중에서 나타나 진목에게 올렸다. "밥을 보내는 것은 고마우나 몸소 가지고 올 필요까지 있겠소?" "소승은 현재 대둔산에 머물고 있는데, 막 공양을 하려는데 바리대가 저절로 움직이기에 이상하게 여겨 그것을 잡으니 알 수 없는 신력에 이끌려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스님은 향후 아침저녁으로 공양을 올릴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절에서 나왔는데, 삼시간에 자신의 절로 돌아왔다. 이로부터 밥과 바리가 오고가기를 4년이나 계속되었다고 한다. 진목은 어느 날 대원사 스님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들의 절은 앞으로 일곱 대에 거쳐 액운을 만날 것이다.
- 92) 대사가 하루는 시자를 시켜 봉서사 남쪽 부곡(婦谷)으로 소금을 가져다주라 하니, 시자가 누구에게 주느냐고 반문하자 가보면 알 것이라고 하였다. 시자가 가서 보니 사냥꾼 여러 사람이 노루 고기를 회쳐놓고 소금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있었다.그들은 소금을 받으며 "활인지불(活人之佛)이 골마다있다 함은 이를 말한 것이다." 하였다.
- 93) 김봉곡은 당대 전북에서 가장 이름높았던 실력자로 낙향 후 진목의 소문을 듣게 되고 곡차를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만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94) 봉곡은 어느 날 계집애 종을 시켜 진묵에게 음식을 보냈는데 도중 에서 진묵을 만나게 되었다.진묵은 창공을 바라보며 서성거리다가 섰는지라 계집종이 그 앞에 다가서 봉곡이 하명한 일을 전하니 진묵이 하는 말이 '너는 자식을 낳고 싶지 않은가?'했다. 계집애 종은 이를 거절하고 만나지 않았다. 그랬더니 진묵이 하는 말이 '너는 어찌 그리도 복이 박한가!'라 했다. '돌아가거든 봉곡 선생에게 내가 올 것이라고 여쭙어라.'계집애 종은 봉곡에게 복명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느지막이 도착하니 봉곡이 말하기를 '왜 그리도 더딘고.' 진묵이 말하기를, '마침 한 조각 영특한 기운이 서쪽 끝에서 떠오는지라 이런 일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일이어서 사람을 끌어 당기어 쏘아야 할 일인데도 사람을 만나지 못한 탓으로 도리어 산만하게 불길한 끝에 흘러버릴까 염려되어서 공중 밖의 올 너머 멀리 쫓아 버리고 오느라고 절로 늦은 따름이라.'

95) 진묵의 열반에 대한 또 다른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진묵은 열반에 들면서 제자에게 일렀다. “내가 서천 서역국으로 대장경을 가지러 가니, 누가 와서 물어도 내 몸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진묵은 그로부터 누워서 자는 사람처럼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 어느 날 봉곡은 하도 진묵의 소식이 없어서 봉서사로 진묵을 찾아왔다. “스님 어디 가셨는가?” “출타하셨습니다.” “출타를 하면 반드시 내 집을 들러서 가곤 했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 봉곡은 억지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진묵은 반듯이 누운 채 잠자는 것처럼 꼼짝 않고 있었다. “누우신지 얼마나 되었는데?” “백 일 췌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님은 죽으면 화장하는 것이니, 그만 불살라 버리게.” 그리하여 진묵의 육신을 화장하여버렸다. 그런데 진묵이 팔만대장경을 다 외워 돌아와 보니 자기의 육신이 없어져버렸다. 제자들에게 경전만 읽어 외우게 하고 도로 돌아가면서 봉곡 가족들에게 말했다. “자네들이 내 육신에 이렇게 피해를 입혔으니, 자네 자손들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물 때문에 고생할 것일세.” 과연 그 뒤로 산의 물줄기가 바뀌어 논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했다고 한다.

96) 열반하실 때가 되자 진묵스님은 제자들을 모아 놓고 “내가 몇월 몇일에 열반에 들어야겠으니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 어린 사미승이 “스님!, 그 날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정초여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묵스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도 그럴 듯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그러자 사미승이 그 다음날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 날짜가 닥쳐오니 스님이 또 내일은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제자들은 이번에도 그 날은 큰 49재가 들어왔는데 스님께서그 날 돌아가시면 49재와 겹치게 되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은 일리가 있으시다면서 “그러면 49재 지나고 가야겠구나”하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날이 되자 진묵스님은 삭발 목욕 끝에 옷을 갈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대문 밖 개천가 에 서서 시자에게 물 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석가불의 그림자다] 고 하니, 시자가 말하되 [저것은 스님의 그림자가 아닙니까?] [너는 어찌 나의 가상만 알고 석가의 진신을 보지 못하는가?]라고 말씀하신 다음, 방에 들어가 가부좌를 맺고 제자들을 불러 [내가 곧 입적할테니 너희들이 질문할 것이 있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다. 제자들이 묻기를 [스님은 누구의 법맥을 이어 받았습니까?] 하니, 조금 있다가 [무엇을 따로 이을 것이 있겠는가] 제자들이 절하고 다 시 청함에 부득이 말하기를 [비록 명리승이긴 하지만, 서산 스님의 법을 원사하였다] 하고 조용히 열반하였으니, 1633년 10월 18일이었다. 김봉곡의 일과는 서로 반대되는 기록이다

97) 아직도 송화백일주를 빚어 진묵대사 기일(음력 10월28일)에 제주로 올린다